

Eugene's FIICC Update (2023.4.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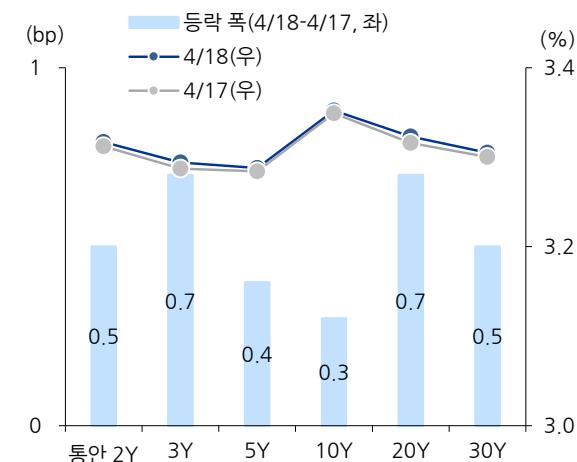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	4/1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294%	0.7	6.3 -42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52%	0.3	9.7 -37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5.8	6.2	2.4 0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88	1.0	-27.0 143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88	5.0	-107.0 393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03%	0.5	18.3 -21.7
	미국채 10년물	3.576%	-2.9	14.9 -30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-62.8	-59.4	-59.4 -54.2
	독일국채 10년물	2.475%	0.6	16.6 -9.0
	호주국채 10년물	3.473%	10.1	25.0 -57.8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보합 마감.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영향.
- 전일 미국 제조업지수 및 주택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 등의 여파로 금리 상승 출발. 이후 장중 발표된 중국 지표를 기점으로 금리 상승 폭 반납하기 시작.
- 중국 GDP 등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내수 중심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내 경기 우려 확대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 마감. 5월 인상 기정사실이지만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.
-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경기 기대감 커졌지만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작용, 금리 변동성 높아지고 있음.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엇갈리는 발언도 영향.
- 금일 영국 3월 CPI 및 PPI 발표 예정. 연준 베이지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경기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.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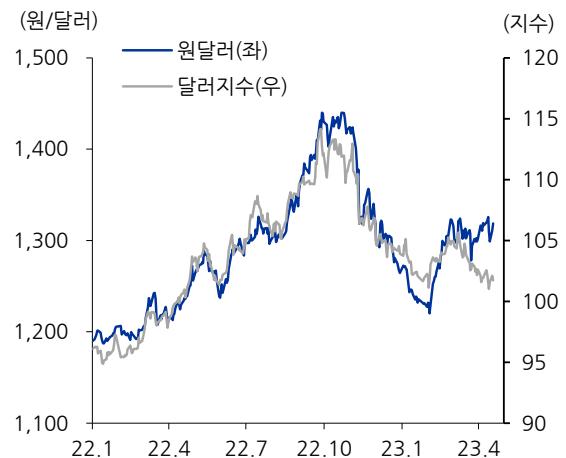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4/1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18.60	0.6%	-0.3%
	달러지수	101.74	-0.4%	-0.4%
	달러/유로	1.097	0.4%	0.6%
	위안/달러(역외)	6.88	0.0%	-0.2%
	엔/달러	134.11	-0.3%	0.3%
	달러/파운드	1.243	0.4%	0.0%
상품	해알/달러	4.99	0.9%	-0.4%
	WTI 근월물(\$)	80.86	0.0%	-0.8%
	금 현물(\$)	2,005.43	0.5%	0.1%
	구리 3개월물(\$)	9,002.50	0.4%	1.7%
				7.5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+7.50원 상승한 1,318.60원에 마감.
- 간밤 달러 강세 영향에 +7.40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장 초반 1,321원 선까지 상승폭 확대. 그러나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됨.
- 오전 내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을 지속하다 중국 경제지표 발표 후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는 모습. 중국 1Q GDP는 +4.5% (Y) 상승해 시장 예상치 (+4.0%) 상회. 고정자산투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소매판매가 +10.6%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였음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중국 경제지표 호조 속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-0.4% 하락.
- 중국 1Q GDP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국 목표치인 5% 부근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.
- 한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지속.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추가 1회 금리 인상 후 째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.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시장의 침체 전망은 맞지 않으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.
- 금일 유로존과 영국 CPI, 일본 산업생산 등 발표 예정.